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혜송 씨. 마스크로 가린 혜송 씨의 얼굴을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이 들여다보고 있다.

청원군 불교호스피스 요양시설 '정토마을'

'마지막 쉼터' 빚더미 허덕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오늘 하루. 그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 하는 사람들. 삶의 끝자락이 힘겹고 벅차기만 하다.

충북 청원군 미원면에 자리 잡은 불교호스피스 요양센터 '정토마을'. 이곳은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쉼터'다.

불치환자 12명 수용

이곳에 들어온 지 7개월 째인 스물한 살의 혜송 씨. 그의 방문에 걸려있는 '절대안정, 외부인 출입금지!'란 섬뜩한 팻말이 눈앞을 가로 막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혜송 씨는 수척한 얼굴만 삐죽 내민다.

일곱 번째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혜송 씨는 최근 독감으로 인근 청주 성모병원 무균실에서 한달 넘게 입원해 있다가 돌아온 탓에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삶의 한줄기 빛이라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 지난 2000년 10월 개원한 정토마을에는 급성골수백혈병, 말기 암환자, 혈액종양, 카타아수병(동맥염) 등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명이 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처지가 못되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이곳에 하나 둘씩 모여 같이 살게 된 것이다.

정토마을에는 중증환자만 모여 있다 보니, 하루 24시간 이들의 간병은 물론, 지속적인 상담과 하루 세 끼 식사에 이르기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근래들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토마을은 미인가복지시설인 까닭에 정부지원금은 없다. 그동안 후원자들이 보내오는 후원금에 100% 의존하며 근근이 시설 운영을 해왔지만, 부쩍 비싸진 약값, 병원진료비, 각종 생활용품비, 공과금 등 총 운영비 지출이 몇 개월새 30% 넘게 늘어났다. 게다가 간호사 등 상근자 인건비에, 매월 전기세만 해도 1백만원이 지출되는 등 한달 살림규모가 3천만원이 넘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은행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원금과 이자가 고스란히 빚으로 쌓여가고 있다. 한 달에 들어가는 이자만도 1백만원이 넘는다.

미인가 … 지원 못받아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은 "후원가족들이 두 배만 늘어난다면, 그나마 좀더 편안하게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다"며 "내 부모, 내 형제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1번지

전화 : (043)298-2258

후원계좌 : 농협 401142-52-182117(예금주 여돌금) 홈페이지 http://www.jungtoh.com

충북 청원= 김철우 기자

신행 캘린더

5월 1일 (수)

■지형스님 '대길상도' 전시회= 말(馬) 그림 그리기를 통해 불법 포교에 나서고 있는 서울 소림정사 주지 지형 스님.

중생의 성불을 상징하는 금용등천도, 불법을 구하기 위한 도약을 표현한 만마장성도, 100마리 말들이 달리는 모습인 대용마도 등 지형 스님이 그린 작품 200여 점의 전시회가 서울 잠실 호텔롯데월드 3층 특설 대법회장에서 5일까지 계속된다.(02)511-6210

5월 3일 (금)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날 행사'=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월드컵의 달. 월드컵 개막을 맞아 어린이들의 가슴이 설렌다.

◇지난해 어린이날 열린 '구슬치기 대회'.

옥수종합복지관은 오후 3시 복지관에서 월드컵 주제의 어린이 놀이대회를 마련한다. 이 행사에는 축구대회, 바디 페인팅 응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돼 있다. (02)2282-1100

■진관스님 '염화미소'= 명동 창고극장은 12일까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이 극본을 쓴 '염화미소'를 공연한다.

평일은 오후 7시 1회, 토요일은 오후 4시, 7시에 2회에 걸쳐 열리는 이 연극은 나무꾼이 출가를 결심하는 이야기, 출가 후 겪는 이별의 슬픔, 수행정진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등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02)775-0535

5월 4일 (토)

■은평구립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꿈과 환상의 세계로 날아가 동화 주인공들을 만나보자.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나쁜 어린이표> 등의 작가 황선미씨를 초청해, 동화 속 주인공들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오후 3시 은평구립도서관 시청각실에 마련됐다.(02)385-1671

■터사랑 '성지순례'= 함평 용천사를 찾아서….

대웅전 밑에 용이 태어난 샘이 있다는 전설을 간직한 용천사. 용천사는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천년 고찰로 각진, 각적 등 고승들이 머물며 수행정진을 했다.

터사랑과 함께 떠나는 이번 여행의 출발은 밤 11시 서울역, 참가비는 성인 8만 9천원.(02)725-1284

■지운 스님 '초청법회'= 대전 보현불교대학은 오후 7시 대법당에서 송광사 강주 지운스님을 초청, '지혜로운 불자의 길' 주제의 법회를 봉행한다.

<찻잔 속에 달이 뜨네>의 저자로 유명한 지운스님. 스님은 '차 한잔 속에도 도가 있다'고 말하며 일생생활 속 수행을 늘 강조한다.(042)624-6555

5월 5일 (일)

■두레생태기행 '생태답사'= 안면도 소나무 숲 휴양림을 찾아 떠나는 생태기행…. 가족들이 함께 안면도를 찾아가 소나무 군락을 돌아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이날 행사에는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이 직접 안면도 소나무 휴양림의 특징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서초구청 정문 앞. 참가비는 어른 3만 7천원, 어린이 3만 3천원.(02)712-5812

■불광 '부처님 그리기' 대회= 맑고 깨끗한 어린이의 눈에 비친 부처님의 모습은 어떨까? 월간 불광은 오전 9시 30분 봉은사에서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02)511-6070

5천여 신도 뒷바라지 솔선

우리 절 우리 신도

분당 하얀마음선원 박영숙 신도회장

◇하얀마음선원의 신도회장인 박영숙 보살(사진 가운데)이 봉축을 앞두고 신도들과 함께 연등을 만들고 있다.

사찰일 하면 할수록 환희심 솟아

고아 · 양로원 갖춘 복지타운 서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하얀마음선원은 현재 불사가 한창이다. 특히 10일 이전개원법회를 앞두고 있어 여기저기 마무리 공사를 하느라 스님과 신도들의 얼굴엔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이 가운데 공양간을 지키며 공사장 인부들과 스님들의 간식을 정성스레 담아내는 숙련된 한 보살의 손놀림이 눈에 띈다. 그가 바로 하얀마음선원 5천여 명의 신도회를 이끌고, 있는 신도회장 박영숙 보살(46 · 곤륜행)이다. 박 보살은 체면이나 격식을 차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찰에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인다. 행사나 법회 때 인사말이나 하는 식의 무게(?)를 잡는 것은 박 보살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박 회장은 '또순이형 신도회장'이다. 공양짓기, 연등 만들기, 신도관리, 법당 청소, 행정사무 등 사찰 내에서 박 회장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다. 실제로 2년전 신도시 포교를 위해 상가 지하에서 출발한 하얀마음선원이 1천여 평의 대지위에 현재와 같은 큰 불사를 할 수 있게 된 데는 박 보살의 역할이 컸다.

선원장 덕봉 스님은 "이번 법당 이전불사는 신도조직을 잘 관리하고 무슨 일이든지 몸을 아끼지 않는 박 보살이 없었다면 아마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 효자촌 지하건물에 있던 하얀마음선원이 현재의 이매동으로 옮겨와 불사를 하려고 할 때만 해도 먼저 자리 잡은 개신교와 신도의 반대민원으로 불사가 쉽지 않았다. 이때 박 보살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무장일을 한 경험을 살려 행정실무를 도맡아 분당구청을 수시로 드나들며 불사를 추진했다. 1년 동안 서울 서초동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하얀마음선원까지 거의 매일 출퇴근하며 불사는 물론 아픈 신도 위문 등 사찰의 대소사를 모두 챙겼다. 지금도 박 보살은 오전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선다. 이런 성실성 때문에 선원에 일이 생기면 승속을 막론하고 박 보살부터 찾는다.

박 보살이 이렇게 사찰 일에 열성적이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하얀마음선원 불교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다. 당시 2개월 과정이었던 불교대학에서 기초교리는 물론 감로수 같은 법사스님들의 법문에 감화를 받으면서 사찰 일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사찰일은 하면 할수록 환희심이 납니다. 좋은 도량이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불자들이 편안히 와서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완전히 법당을 개방하는 우리 사찰에서는 저를 비롯한 신도회원들이 좋은 도량을 가꾸기 위해 온 힘을 기울입니다."

투명한 사찰 경영을 위해 만든 사찰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있기도 한 박 보살의 꿈은 원장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합해 고아원과 양로원이 함께 있는 복지타운을 세우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참불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 귀중한 가르침인 보시행을 실천하며 살 겁니다."

웃음 띤 박 보살의 나직하지만 확신에 찬 말속에서 불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깊은 신심과 강한 신뢰감이 느껴졌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추천의 말

덕봉 스님 하얀마음선원장

하얀마음선원은 분당 신도시 지역 포교를 위해 2년 전에 개원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불교교양대학을 기반으로 신도들이 꾸준히 늘어나 이매동에 도량을 만드는 이전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실상부한 분당지역의 도심포교당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에는 신도들을 자기 식구처럼 챙겨주고 아껴주는 박영숙 보살의 공이 컸습니다. 곁에서 2년 동안 지켜본 바로 박 보살은 아무리 어렵고 짜증스런 상황이 발생해도 한번도 화낸 적이 없을 정도로 신도 화합과 단결에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이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매일 사찰에 출퇴근하며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는 박 보살의 성실성을 지켜보며 이런 신도가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주는 박 보살이야말로 하얀마음선원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부처님 말씀 · 깨침의 소리

불교성전

5년간의 준비끝에 새롭게 출간된 불교성전!

오랫동안 불교를 믿거나 공부하고도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불자나 초심자도 『불교성전』을 펼치는 순간 환희와 신심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도 무한 경쟁시대—! 佛法을 바로 알아야 불교를 지킵니다.

중 요 차 례

⊙ 제 1 부 경전의 말씀
제 1 장 서 품
제 2 장 교리강령품
제 3 장 불 타 품
제 4 장 신 앙 품
제 5 장 업 연 품
제 6 장 자 치 품
제 7 장 대 치 품
제 8 장 포 교 품
제 9 장 구 경 품
⊙ 제 2 부 간추린불교
제 1 편 부 처 님
제 2 편 가 르 침
제 3 편 수 도
제 4 편 교 단
⊙ 제 3 부 독송경 · 발원문
천수경 · 예불문 · 반야심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원각경보안보살장
화엄경보현행원품
부모은중경
법성게 · 무상게
기도발원문
천도법어 · 찬불가

4×6판 최고급 호화금장 양장제본
70g 고급 미색 모조 600페이지 값 18,000원

전국 유명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법보시 및 단체주문시 특별인쇄 공급합니다.

▣ 계좌번호: 농협 053-01-102503 예금주: 김정길

弘法院 (02)739-8745~6